일본의 만주문학

-「대륙 개척 문예 간화회」를 중심으로-

양예선*

차 례

1. 「대륙 개척 문예 간화회」에 대하여
2. 湯淺克衛의 작품을 통해 본 일본의 「대륙개척문학」
3. 「일본 문단」에 의한 「조선 문단」 침략성

1. 「대륙 개척 문예 간화회」에 대하여

일본의 「대륙개척문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대륙 개척 이민 정책」이 있다. 「대륙 개척 이민 정책」이 1938년경에 국책으로 실시됨으로서 일본 문학자들이 만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만주 시찰을 거쳐 개척 이민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이 발표되었다.

초기 작품으로서는 유아사 카츠에이(湯淺克衛)의 「선구이민」(「先驅移民」, 『改造』, 1938. 12), 도쿠나가스나오(德永直)의 「선견대」(「先遣隊」, 『改造』, 1939. 2)가 있다.

그러나 개척문학이 더욱 생산되는 것은 국책 단체인 「농민 개척 문예 간화회」(「農民開拓文學懇話會」)와 「대륙 개척 문예 간화회」(「大陸開拓文學懇話會」)가 탄생된 이후이다. 두 단체는 탁무성 주선으로 결성되었으며, 멤버도

www.kci.go.kr

* 호세이대학교 겸임 강사

중복되는가 하면, 그 추진 목적도 비슷하다. 1938년 10월에 결성된 「농민 개척 문예 간화회」 주요 멤버로는 和田伝, 打木村治, 鑓田研一, 德永直, 本庄陸男, 加藤武雄, 島木健作, 伊藤永之介, 丸山義二 등 농민문학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대륙 개척 문예 간화회」는 1939년 1월에 결성되어, 주요 멤버로는 福田清人, 岸田國士, 田村泰次郎, 島木健作, 高見順, 伊藤整, 張赫宙 등이다. 나중에 和田伝, 丸 山義二, 山田清三郎 등도 참가한다. 간화회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一, 대륙 개척의 목적을 가진 작품의 자료 제공, 연구의 편의를 도모할 것.
> 一, 그런 목적에 의한 작가의 현지 조사에 편의를 기여할 것.
> 一, 대륙 개척에 관한 훌륭한 작품에 추천 수장, 연극화, 영화화의 협력.
> 一, 좌담회, 강연회등의 개최. (역자－인용자)

「농민 개척 문예 간화회」와 「대륙 개척 문예 간화회」는, 각각 대륙 파견의 「농촌 펜 부대」, 「대륙 펜 부대」를 편성, 「농촌 펜 부대」는 和田伝과 島木健作가 각각 출발했으며, 「제1회 대륙 펜 부대」는 伊藤整, 福田清人, 田郷虎雄, 田村泰次郎, 湯淺克衛, 近藤春雄 6명이 동일 출발했다.

펜 부대들은 朝鮮・滿州・北支를 시찰하면서, 朝鮮과 滿州의 문학가들과 좌담회를 갖는가 하면, 공연회와 개척촌, 청소년 의용군 훈련소 등을 방문, 바쁜 일정을 보냈다. 특히,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점은, 朝鮮과 滿州의 현지 문학가들과 좌담회를 가졌다는 점이다. 朝鮮에서는,「島木健作氏招待會印象記」(『東洋之光』1~5, 1939. 5). 「大陸開拓文芸懇話會歡送會」(『東洋之光)1~6, 1939. 6) 등을 참조.

이후, 일본의 문학자들과 빈번한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추후 살펴보기로 하겠다.

「농촌 펜 부대」와 「대륙 펜 부대」는 귀국 후, 각각 다수의 작품을 발

www.kci.go.kr

표하고 있는데, 주요 작품들을 소개하면, 和田伝, 『大日向村』(朝日新聞社, 1939), 島木健 作, 『滿州紀行』(創元社, 1940. 4), 湯淺克衛, 『아득한 地平』(東亞廣論社, 1940. 2), 福田淸人, 『大陸開拓』(作品社, 1939. 11), 伊藤整, 「松花江의 船旅」(『文學者』, 1939. 9), 田村泰次郎, 「강한 남자」(『新滿州』, 1939. 9), 田郷虎雄, 「制服의 어머니 들」(戱曲, 『新滿州』, 1939. 8), 近藤春雄, 「拓士의 노래」(滿州開拓行進曲)(『新 滿州』, 1939. 8) 등이다.

위 작품 중 몇몇을 소개해 보면, 대륙 개척 문학 작품 중 널리 알려진 소설로서는, 和田伝의 『大日向村』을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빈곤한 일본의 농촌에서 만주로 개척민이 되어 떠나는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비좁은 일본 내의 농촌에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만주로 이주함으로 인해, 남아 일본 농촌을 지키는 사람도, 만주로 이주하는 사람도 서로 행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것이 곧, 나라를 위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대륙 개척 문학의 대표작으로서, 영화화 되어, 만주 이민 붐을 선동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和田伝은 이 한 권으로 일약 만주 개척 문학의 일인자가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는 일본의 근대 문학사에서 농민 문학자의 대표로 손꼽을 수 있으며, 「국책 단체」인 「농민 개척 문예 간화회」를 결성하게 된 계기를 만든 작품 『沃土』(砂子屋書房, 1937. 11)가 있으며, 그 덕분에 대륙 파견 농민 작가 1호가 되기도 했다.

다음은 田村泰次郎의 「강한 남자」인데, 개척원이 되어 만주로 이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75살의 부친을 통해 개척 문학의 이념을 관철하고 있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만주의 개척지까지 찾아온 부친이 병으로 드러눕게 된다. 그러나 자신으로 인해 개척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어하는 아들에게, 그 이념을 역설한다. 「団이 하는 일은 나라가 하는 일」이며 「네가 하는 일은, 군대가 하는 일과 같다」고 하며, 개척단은 「땅을 경작하는 군대」라고 한다. 개척단이 군대라면 즉 개척단은 침략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언급하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www.kci.go.kr

부친이 위기 상태에 빠져, 의사가 지켜보고 있었다. 출산 도중 위험에 놓인 「만인」이 왕진을 청하러 왔다. 다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위기 상태의 부친 이 의사를 「만인」한테로 보낸다.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민족을 뛰어넘어 행복을 보냄」으로 인하여, 「민족협화의 진정한 영혼」, 「원주민들의 영혼을 개척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개척단의 이해자였던 개척촌에서 죽어 가는 노인을 통해 대변하는 소설이다.

「원주민들의 영혼을 개척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소설을 읽음으로서, 田村泰次郎의 문학 사상이 노골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일찍이 유아사와 같은 『人民文庫』의 同人이었으며, 프롤레타리아의 영향을 받은 작가가, 다른 많은 일본의 문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에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을 보여준다. 이후, 田村泰次郎는 행인지 불행인지 얼마 없어 1940년에 소집된다. 동료 문학자들이 일본의 농촌과 만주의 개척지 등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땅을 경작하는 군대」들을 펜의 힘을 통해 국책에 협력하는 동안, 田村泰次郎는 실제로 총을 들고, 中國戰線에서 일본제국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 전쟁 체험이, 전후의 그의 문학 활동을 지배한다. 조선여성에 대한 기술들은 귀중한 역사의 증언이기도 하다.

그 외의, 첫 펜 부대들의 작품들 중 伊藤整, 湯淺克衛, 島木健作의 작품에는 노골적인 표현들이 어느 정도 소극적이라 할 수 있으나, 田郷虎雄, 「制服의 어머니들」, 近藤春雄, 「拓士의 노래」에서는, 앞서 예를 든 田村, 和田, 福田 등에서와 같이 皇國 이데올로기에 철저하고 있어, 일본 문학자들의 국책협력의 실상을 읽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제2회 대륙 펜 부대」로는, 張赫宙, 高見順, 井上友一郎, 荒木巍, 小田嶽夫 등이었다. 제1회 대륙 펜 부대의 귀국 후 만주로 출발했다.

1940년 9월에 「대륙 개척 문예 간담회」와 「농민 문예 간담회」가 합동해서 「문예 보고 연맹」을 결성했다.

만주 이민 정책에 의해, 만주 이민들의 상황을 소설로, 르포르타주로

www.kci.go.kr

써 나갔는데, 이는 만주 이민 정책을 선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전항의 田村泰次郎의 「강한 남자」에서도, 개척단은 「땅을 경작하는 군대」라고 하듯이, 결국, 「땅을 경작 하는 군대」를 선전하기 위해 소재로 하는 「대륙 개척 문학」은, 침략 문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 근대 문단사에서 「대륙개척문학」의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누구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湯淺克衛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유아사의 구체적 내용의 작품을 통해 좀 더 「대륙개척문학」의 이해도가 깊어지리라 본다. 특히, 유아사는 누구보다도 조선에 대해 많이 쓴 일본의 작가이다. 여기에서는 대륙 개척 문학 안에서, 조선과 관련이 있거나 대륙 문학의 중요한 작품을 골라 소개하도록 하겠다.

2. 湯淺克衛의 작품을 통해 본 일본의 「대륙개척문학」

우선, 일본의 「대륙개척문학」의 선구적 역할을 한 유아사 카츠에이의 「선구이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구이민」은, 만주국이 건설된 그 다음해인 1933년 7월에 만주로 출발한 선견대(先遣隊)의 제2차 둔간단(屯墾団)에 대한 이야기다. 당시, 「선구이민」은 일본 문단에서는 새로운 장르이자, 또 그 시대의 흐름에 주목받을 만한 내용이었다. 다음은 당시의 「선구이민」에 대한 작품평이다.

> … 이 작품에는, 막막한 황야에, 불안과 전율과 애수와 결의와, 복잡하게 뒤얽히는 마음속 녹음에 맞아가면서도, 붙들고 늘어지는 이민의 생명력이, 충실하게 약동하고 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는 자주 보지만, 만인 부락

> 이랑 비적의 실감은 우리들에게 멀지만, 이러한 작품을 읽으면,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지방과 땀과 피가, 직접 몸에 와 닿는다. 시정의 신경이, 갑자기 커져서, 긴장되는 것 같다.(田辺茂一, 「文學時評」, 『文學者』, 1939. 1)(역자—인용자)

> … 잘 조사해, 잘 보고 썼다는 점에서는 경의를 표하겠지만, …. 거기에는 작자의 몸에 배인 자주적인 사고도 없으려니와, 작자의 내부에서 발하는 표정도 없다. 작자는 이 역작을 조사하여 쓰기 위해, 아마 많이 고심을 여하여 쌓았다하더라도, 진심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上林暁, 「外的世界와內的風景」, 『文藝』, 1939. 1)(역자—인용자)

한 작품에 대한 평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사가 1938년 8월에서 10월에 걸쳐 朝鮮—熱河—北支・滿州를 취재 여행하여 쓴 작품이다. 선견대가 만주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비적과의 격전을 전하는 이 작품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위의 평가와, 문학 작품으로서의 재질을 가차 없이 추궁하는 또 하나의 비평에 대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초기에 쓰인 이 「선구이민」이라는 작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쓰이는 개척 문학 대부분에서도 이 비평에 맞설 작품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 시대가 낳은 문학 장르의 실체라고 해도 어패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일본의 대륙 개척 문학은, 초기의 소재성과 예술성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결국, 침략 전쟁의 확산과 함께 오족협화의 문학으로, 종전까지 더욱 활발한 전쟁 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를 굳혀 갔다.

그러면 湯淺가 이 작품 이후, 어떤 개척 문학을 남기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회 대륙 펜 부대로부터 귀국 후 발표한 湯淺克衛의 『아득한 地平』은, 그의 첫 장편소설이다. 소설 내용을 보면, 조선에서 자란 마토노 도요 오는, 도쿄의 사립 대학의 전문부를 졸업해 경성의 전기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는 도쿄에서도 「높은 이상이나, 높은 생활」

www.kci.go.kr

을 찾아낼 수 없었고, 경성에서의 샐러리맨 생활에서도 그것을 채울 수 없었다. 마토노는 어릴 때부터 그의 정신적 성장에 영향을 주던 형의 친구 이치기 슌조가, 홋카이도의 농업 시험장의 기사를 그만두고 만주로 건너는 것을 알았다. 이치기 슌조는, 「아직 꽃이 안 핀 처녀지지. 꽃을 피우게 해 보지 않겠나」라며 마토노에게 권했다. 마토노는 이치기 슌조의 뒤를 쫓아 만주로 건넌다. 3~4년의 집단 개척 생활 후, 각각의 선견대원은 가족을 맞아들였다. 세대를 가진 단원들은, 종래대로의 집단 경영이 곤란하게 되어 개인경영으로 옮긴다. 또, 집단 형태로부터 부락 형태로 이행해 조직도 변해간다. 마토노는 도쿄에서 만난 마츠마에 이 히사코를 불러와 일세대를 이루고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굳혀 갔다.

선구 이민으로서의 비적 토벌, 농경 생활지의 확보, 가족 맞아들이기, 이민 개척 촌으로서의 변모 등, 「아득한 지평」은 만주 개척 이민이 이민으로서 정주해 나가는 순로를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동체 생활로부터 각기 세대를 가지는 것으로, 개인 생활로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이민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가촌 제가 깔리는 등, 이민단의 생활이 한층 확장되어 가는 한편 이민들의 망설임이 자세하게 묘사되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식민자 2세로서 자란 두 명의 청년이 만주 개척 이민 지도자가 되어 가는 프로세스이다. 여기에는 식민자 2세로서 자라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부터 「대륙 개척 문예 간담회」의 멤버가 되어 국책 문학을 수행해 나가는 작자 자신의 자세가 투영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주인공 마토노 도요오가 도쿄의 사립 대학에 재학한 경위는 「어느 눈 오는 날에 트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아이고 하고 울기도 하고 노래를 합창하는 저고리 차림의 여학생 일단이, 퍼붓는 함박눈 속에 화려한 한 폭의 그림처럼 지나갔는데, 그날 이래, 마토노는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조선의 일각에서 생각하고 있던 사태는 이미 현실에서는 힘이 없

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게다가 「그것이 지상으로부터 자취을 감추어 지하 운동이라고 일러지고 있다는 것, 더구나 지하에 잠입하고 나서 한층 평정을 잃고, 무엇인가 폭력적인 것을 예상되는 것이 마토노에게 어떤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그 후 마토노는 도쿄의 학교에서 다양한 연구회에 들어가 「높은 이상이나, 높은 희망이나, 높은 생활」에의 탐구의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조선의 중학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무것도 몰랐」고, 그에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물아물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류의 움직임」이었다. 도쿄에서의 3년간의 「우울」한 생활로부터 조선에 돌아왔을 때, 3년만의 조선은 변해 있었다.

마토노는 식민지 정책에 시달리는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의 힘을 요구해 그 길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쿄에 간 것이 틀림 없었다. 그것은 어떠한 혁명 운동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조선에 돌아왔다. 거기에는, 조선의 젊은이를 중심으로 내선일체(內鮮一体)의 새로운 정책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이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마토노는 조선인을 위해서 해야 할 목적을 잃어 갔다. 그리고 재차 식민자 2세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조선에서 자라, 조선에 살면서, 게다가 조선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 도쿄의 아류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불쌍하지 않은가」, 「이 대지로부터 갑자기 돌출한 놈같은」 영웅의 출현을 기대했다.

식민자 2세들의 괴로운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마토노 한 명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어릴 때부터 조선에서 자라고 조선인의 친구도 있으면서 조선어도 충분히 못하고 익살이나 농담도 할 수 없고 마음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가끔 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집안에 들어가도 토지의 청년이라도 뒤따라 오면 우리에게는 더이상 쳐다 봐 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래도 언제까지 지나도 에트랑제군요」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가 있었다. 계속해서 일본인의 유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선의 유곽을 찾는 것은 「여자들을 통해 조

www.kci.go.kr

선을 알고 싶은 욕망」에서라고 한다.

식민자라고 하는 입장은 물론 지배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서 자란 식민자 2세가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약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식민지에서는 자신들은 「에트랑제」이며, 조선을 알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유곽의 여자들밖에 없는 식민자 2세들. 한편, 내지에서 자란 일본인에게 끊임없이 차별받는다.

이러한 식민자 2세인 마토노와 이치기의 묘출에는, 일찍이 조선 민족의 해방을 구하는 작품을 쓴 유아사가, 시세의 변화와 함께, 거기에 바뀌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나 찾아낼 수 없었던 과정. 내선일체화 정책의 현실과 식민자 2세의 고뇌 등에 의해서, 국책 순응에 이끌린 과정이 투영되고 있다고 해도 좋다. 거기에는 새로운 문학 사상을 낳을 수 없었던 자책을, 조선의 현실의 변화에 책임 전가해 버리는 자세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해 생활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만주를 「아직 꽃이 안 핀 처녀지」라고, 침략자의 사상으로 봐 버린 무리한 이민 정책을, 당시 많은 지식인은 물론, 인민을 위해서 피를 흘려 투쟁한 Marxist들도 오인해 버린 근저에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작품에서는, 식민자 2세인 이치기가 「내지」에 대한 열등감으로부터 탈피에의 결론으로서, 「내지를 반성」시켜 보이기 위해서 만주행을 지망한 것에의 이유이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식민자 2세들의 고뇌도 그려, 그 나름대로 독자에게 호소하는 것을 가진 것은, 유아사가 자신의 청춘을 돌이켜 생각함으로써 얻은 진지함의 결실이라고 할까.

이 『아득한 地平』은, 같은 대륙 꿴 부대로서 만주에 파견된, 후쿠다 기요토의 「대륙의 건설은, 일본의 몇 천년의 역사 위에, 전혀 보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 『大陸開拓』보다는 국책 문학성이 희박하다고 말할 수 있고, 유아사의 동시기의 작품보다 봐야 할 것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후쿠다 기요토의 『大陸開拓』은, 보고문을 넘은 선무 작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득 한 地平』에서는 「비적이라 말해

도, 민중이라는 것이 제일 흥미 있는 문제다」라고, 비적의 성격을 분명히 표현하고도 있다. 이 밖에는 유아사의 다른 작품으로부터 비적의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大陸開拓文芸懇話會」의 멤버로서의 湯淺克衛는, 滿州 開拓地의 分村과 日本 國內의 母村, 또 각처의 訓練所등을 活發하게 訪問했는데, 이것을 素材로해서, 小說集, 『푸른 윗도리』(昭和書, 1940. 8), 長編, 『둘도없는 태양 아래서』(地平社, 1942. 3), 르포르타주, 『民族의 緯糸』(新世代叢書, 1942. 7), 小說集, 『白系露人村』(金星 堂, 1944. 3) 등이 쓰였다.

만주 이민 정책이 국책인 것처럼, 유아사가 그리는 작품도 국책 문학의 경향을 현저하게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없었고, 만주 이민 사업의 정책이 변하는 것에 따라 작품의 내용도 또 정책에 따른 것이 되어갔다.

長編『둘도 없는 태양 아래서』는 만주 개척의 분촌(分村)을 그린 장편이다. 1940년 3월에 분촌한 기소(木曾)의 요미가키무라(讀書村)를 모델로 하고 있다. 母 村分村에 대해 찬부 양파로 갈라져서 진행의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활약으로 마을 사람들은 차례로 동화되어 간다.

이 마을은 「경위 갱생 지정촌」(經緯更生指定村)으로 선택되어 그리고 「分村 計畵」이 된 것이다. 「우리들 讀書村는 지금 갱생의 意氣에 불타 넘쳐, 分村의 대업 감행(大業敢行)의 壯途에 올랐다. 즉 마을을 두 개로 나누어, 우방 만주국에 2백 호의 주민을 보내, 따라서 새롭게 滿州讀書村를 건설해, 母村分村을 一丸으로 하는 讀書協同村을 實現」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민 모집같은 낡은 방법은 취하지 않는다. 정신이 틀리다」. 그러니까, 소작민뿐만이 아니라 지소(地所) 소유자도 계속해서 갈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응모자 중 타마을 사람, 호주권이 없는 「미망인」, 일가의 장남, 재일 조선인 등이 제외된다고 하는 일막도 있다. 5~6년이나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는 재일 조선인에 대한 제외의 이유는 애매하게 되어 있다.

www.kci.go.kr

이 작품 속에서 「신부 강습회」의 강연 내용으로, 당시의 만주이민 정책의 사상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용해 보겠다.

- 滿州國은 오로지 滿州人만의 滿州가 아니라 日本人의 滿州일 수 있다.
- 滿州國의 繁榮은 조국의 번영이다.
- 移民은 평화 확립의 工作이다.
- 滿州에 일본인이 이동하는 것은 天理이다.
- 지금까지의 사변이나 전쟁은 모두, 일본 민족이 대륙에 건널 때까지의 태동이다.
- 야마다 나가마사(山田長政)는 모처럼 샴에 가서 그토록의 세력을 뻗었지만, 그것은 일대로 자취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여성을 동반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주도 여성이 가서 뿌리를 내려, 자손을 길러 생활하지 않으면 진정한 개척은 성취되지 않는다.
- 청일 전쟁·러일 전쟁 후에 개척민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주사변, 중일전쟁 이 차례차례로 일어났다. 지금 우리가 가서 굳히지 않으면 또 다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둘도 없는 태양 아래서』에서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순수하게 「마을 때문에, 나라를 위해」라고 믿어 이주한 농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 때,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支配를 위한 이민 정책인 것의 자각을 유아사는 어디까지 가지고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까지 國策에 응한 작품은, 예를 들면 조선이 변모해 나가는 모양을 전하거나, 개척 이민들의 생활 기반을 굳혀 가는 모습을 전하거나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國策의 이데올로기가 보다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책에 순응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향으로 작품을 쓰는 것으로, 농민들을 배반하는 아픔을 느끼지 않을 만큼, 시대의 혼미는 깊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大東亞 共榮圈 構想에 근거하는 經濟界의 再編成에 따라, 中小 商工業者의 「大 陸歸農開拓民」의 이주가 시작되어 「商工鑛開拓民」의 이주가 본격화

www.kci.go.kr

된다. 대륙 귀농의 제일진으로서, 龍江省에 입식한 것은 시즈오카 현의 龍山開拓団으로, 이 성공에 의해 현 내의 1,200호의 분촌이 결정된다. 그 「靜岡市를 중심으로 한 駿府村」의 분촌하기까지의 결의를 취급한 것이 『新生』(1943. 12, 山根書房)이다.

湯淺克衛의 왕성한 활약을 통해서 작품도 차례차례로 발표되었지만, 일본 내의 조선인과 조선의 농촌 시찰을 중심으로 한 작품을 모은 것에 소설집 『青空 어디 까지』(1942. 7), 르포르타주 『半島의 아침』(1942. 7)이 있다. 이 두 개의 단행본에는 당시의 유아사의 朝鮮觀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湯淺의 內鮮一体化 運動은, 朝鮮은 물론 在日朝鮮人, 만주에 있는 조선인에까지 미쳤다. 1942년 5월 11일, 유아사는 朝鮮總督府 拓務課의 파견으로 만주의 半島人 開拓 部落의 시찰에 향했다. 張赫宙, 鄭致眞과 함께 파견되어 그 결과 쓰인 것이 長篇 『鴨綠江』(1944. 2, 晴南社)이다. 「昭和 17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 大東亞 省, 朝鮮總督府, 滿州移住協會의 위촉을 받고, 湖底 마을 사람들의 자리잡은 곳을 방문했다」고, 「후기」에는 쓰고 있다.

1942년 10월부터 다음 해의 12월까지 잡지 『開拓』에 연재되고, 43년 2월부터 10월까지 잡지 『綠旗』에 연재된 장편이다. 당초는 3부작의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압록강」은 제3부로서 발표되어 『開拓』에 실린 「압록강」에는 다음과 같은 머리말이 있다.

> 장편 소설 「압록강」 3부작 가운데, 본지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제일 최초로 나오게 되었다. 제1부는 明治 36년, 上流黑山鎭(惠山鎭의 오자라고 생각됨 ※필자)에 분촌해 간 도츠카와무라(十津川村)이야기. 제2부는 수풍(水豊)댐을 포함한 압록강의 변모를, 과학기술자들의 입장에서 쓸 예정이다.

하지만 제일・이부는 발표되지 않았다. 만약 예정대로 쓰였다고 하면 그의 최대의 장편이 되었을 것이다.

www.kci.go.kr

이 작품은 「國家的인 大事業」으로서 건설된 압록강의 일곱 개의 댐의 하나, 수풍댐의 호저에 가라앉은 마을의 7만인이 고향을 쫓긴 이야기를 기초로 쓰인 것이다. 유아사에 있어서의 국책 문학의 총결산으로서 특히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가 어디까지 국책에 관련되어, 협력했는지를, 이 작품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작품의 대강으로부터 보자.

이 소설을 읽으면 당시의 조선인 황민화의 일련의 정책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창씨개명, 조선어의 폐지, 징병 제도 실시 등, 주인공 최영장은 모든 것을 체험하고 있는 인물이다. 오오야마영장(大山英章)이라과 창씨개명 해, 국어(일본어)를 능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일본 정신에 세뇌되어 「일본 제일의 백성」을 목표로 하는 청년으로서 그려져 있다. 확실히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지향하는 모델을 작자가 보기 좋게 만들어낸, 황민화(皇民化) 된 朝鮮人像이다. 대동아전쟁을 위한 군수 생산의 기반이 되는 압록강 수력 발전소, 일본 제일의 건설공사, 그 국가적 사업의 배후에 호저에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의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고향을 쫓겨 뿔뿔이 흩어진, 그 궁상(窮狀)은 거의 그려져 있지 않다. 개척민으로서 만주로 이주해 농민으로서 살 수 있던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강조하는 프로세스가 당시의 유아사의 사상 태도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에는, 주인공 영장이 개척지 이주의 결심에 영향을 준 다도코로(田所)라고 하는 일본인이 나온다. 「토지 매수」에도 「입회해 주었던」 사람으로, 「자신이 빨리 결심이 섰던 것도 다도코로씨의 얼굴을 보고 신뢰했기 때문에」라고 한다. 다도코로는 「일본인을 자각하지 않는 내지인보다 자각한 반도인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며, 반도에서 자란 사람이다. 「자신들의 생활의 앞, 뒤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조선인으로부터 이해와 신뢰를 받고 있는 다도코로는 작자 자신의 모습으로서 감촉할 수 있고, 청년들의 사상을 변혁해, 皇民化하려는 意図가 濃

www.kci.go.kr

厚한 감정이입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소설 내용에서도, 「조선에는 자각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자각한 사람은 꽤 자각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만, 그 외의 사람은 전혀 보잘것없다」고 말한다.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란 일본인으로서의 자각 즉, 皇民化된 조선인이다. 또, 반도인은 「하루 일해 하루 쉬는가 하면, 조금 어려운 일이 연속되면, 내던져버려」, 「별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어, 황민화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表裏一体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다. 「같은 일본인」이 되었을 것인데, 관공서에서 증명서를 받을 때 차별받았다는 불평을 말하는 조선 여성을 본 주인공 영장이 「투덜투덜하며 거친 퍼머의 머리카락. 어린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독한 얼굴로, 지친 피부를 백분으로 기미 없게 칠하고」라는, 유아사가 지금까지 표현한 적이 없을 정도의 지나친 표현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 이런 조선여성에 비해, 옆에 앉아 있는 내지인에 대해서는 「인정 많은 상인풍의 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湖底의 마을로부터 만주 개척 이민이며, 식민지 지배자에게 순종하는 성공자 영장의 배후에는, 불행한 사람들의 존재가 있는 사실을 놓칠 수 없다. 「현금은 받았지만, 따로 살 수 있는 토지는 없다. 고향이 모두 물속이 되어버리는데 살 수 있는 토지는, 요만큼도 없질 않아」라고, 한 명의 농민이 말하는 일설로부터 소설 「압록강」 전체의 모순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실은 그냥 놓칠 수 없다. 「현금」은 오히려 농민들을 타락으로 이끌었고, 결국 湖底의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갱부나 유랑민이었다. 유랑민이 되지 않았던 일부의 조선인이 비장한 결심으로 만주 개척지를 사 개척민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인의 만주 개척민은 10町步의 토지와 보조금을 거의 무조건으로 받았다.

일본 작가들이 만주의 조선인들을 기술한 부분이 있다. 유아사의 작품에도 「가재도구 모두를 쌓아 올려, 아이를 쌓고, 부인과 수레를 당기면서」 여기저기 이주하는 유랑민의 모습이 있지만, 福田清人, 『大陸の青春』(1942.

www.kci.go.kr

2)에는 「영하 20도의 추위에 변변한 연료도 없고, 뚫어진 벽에서 찬바람이 흘러 들어」 오는 곳에서 「선인」의 아동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정경이 있고, 德永直 「先遣隊」에는 「탄산 귀가의 조선 매춘녀(피아)」가 나온다. 만주국의 건설 붐으로 활기찬 일본인들의 뒤편에는, 이러한 조선인들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압록강」에서는 아이들 미래의 모습도 전망할 수 있다. 그 단적인 모습은 「군인」이 되는 것이다. 일본 정신을 주입해 군인이 될 준비를 위해서 「학동 경작논」 만들기에 열중하는 아이를 그리고 있다. 주인공 영장의 조카 만세가 주역이 되어 있지만, 「탄환에 맞았을 때, 아이, 어머니(아, 엄마)하고 말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을 그만 둔다고 해, 그 대신 「天皇 陛下 萬歲」를 언제라도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다고 한다. 아이들은 「천황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 교육되어, 그 미래는 「군대」에 가서 「천황」을 위해서 죽는 것으로 인생을 다한다. 아직 판단력이 없는 소년들에게 황민화를 밀고 나아가, 식민지 지배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식민지 노예를 만들어내 제국주의의 야망인 세계 정복 전쟁에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족 의식을 철저하게 말살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까지 봐 온 유아사의 작품 「선구 이민」 등의 초기 단계에서는, 민족 의식 말살 정책의 방향은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그 의도가 명백해져, 결국 『半島の朝』부터 『鴨綠江』에까지 도달했다. 그 추이에는 중일전쟁으로부터 대동아전쟁에의 정세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湯淺克衛라고 하는 作者의 국책 동조는, 그 의미로 총력전 체제하의 격류에 밀려난 결과에서도 있지만, 일면 분명히 의도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야망의 선두에 서서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서 『鴨綠江』의 위치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1943년 1월, 日本文學報國會에는 皇道朝鮮文化에 관한 연구기관으로서 「皇道 朝鮮研究委員會」가 설치되었다. 유아사도 상임위원이 되었다. 이것

www.kci.go.kr

은 「內鮮一体」화 운동이, 벌써 유아사 등의 개인의 활동을 넘어 일본 문단 내에 그 활동을 펼친 것을 의미한다. 동 「위원회」는 조선인, 재일 조선인의 「皇道化」를 목표로 해, 1943년 10월 중순, 제3회 반도 파견 작가로서 유아사를 시작해 戶川 貞雄, 円地 文子, 深田 久弥, 宍戶 儀一 등을 조선으로 보냈다. 징병제 시행 후가 최고조에 달한 황민화 운동에 흔들리는 반도의 현황을 시찰하기 위해서이다. 유아사에게는 皇道 朝鮮研究委員會가 종래대로의 활동이며, 솔선해 참가한 것임에 틀림없으리라.

이윽고 유아사는 조선 거주 시대에 문단에 데뷔해, 조선 문단 내에서 활약하고 있던 田中英光(다나카 히데미쓰)와 교체나 하듯이 조선으로 이주했다. 1944년 6월, 일본 문학보국회 대표로서, 조선 문인 보국회 주최의 決戰態勢卽応在鮮文學者總決 起大會에 참가했다. 이때, 조선 문인 보국회의 신임 간부로 임명된다. 또, 朝鮮 總監督勅任文化顧問으로 취임해, 일본생활을 청산하고 가족을 동반해 조선으로 이주한다. 대부분의 일본의 문학자들도 피난을 해, 피난처에서 生産体에 協力挺身 할 필요를 강요당하고 있었을 무렵이었다. 유아사의 경우는 피난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재를 전부 정리해, 조선 총감독 칙임 문화 고문으로 취임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장남의 취학 연령이기도 해, 유아사 자신의 출신교 수원 초등학교에 입학 시키기 위해, 정주의 결심으로 가족 동반하여 옮겨 왔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의 이주로부터 곧 패전을 맞이하고 가족을 동반해 인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3. 「일본 문단」에 의한 「조선 문단」 침략성

www.kci.go.kr

한국 근대 문학사의 '일제말 암흑기'를 만들게 된 계기를, 나는 일본 문단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특히, 일본의 국책 단체인 「大陸開拓文芸懇話

會」가 결성되면서, 간화회의 사업 내용에도 「좌담회, 강연회」가 있듯이, 그 목적이 제1회 대륙 팬 부대가 제일 먼저 조선에서 「좌담회, 강연회」가 실시됨으로써,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농민 개척 문예 간화회」가 먼저 결성되지만 이 단체는 주로 일본 내 농촌에 관여를 했다. 제1회 농촌 팬 부대의 和田伝과 島木健作는, 島木健作만 조선의 작가들과 만났으며 좌담회를 가졌다. 그러므로 조선, 만주와 직접 활발히 활동한 것은 「대륙 개척 문예 간화회」라고 볼 수 있다.

「大陸開拓文芸懇話會」의 맴버 중에서도, 張赫宙와 湯淺克衛의 역할이 컸으리라. 일본 문단에서 활약하던 張赫宙는 당연하지만, 湯淺克衛는 당시 일본 문단에서 누구보다도 조선에 정통한 작가였기 때문이다. 張赫宙도 湯淺克衛는 누구보다도 조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작가라고 했다. 조선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유아사는 「간나니」를 비롯하여 조선의 식민지 정책에 박해를 받는 조선 민중을 소재로 해 왔으므로, 조선을 이해하며 조선 작가들과도 친분이 꽤 두터웠다고 할 수 있었다. 몇몇 작가들과의 관계를 보면, 1936년 봄에 「北鮮」을 방문했는데, 이북명을 포함한 한설야와 그 주변 작가들을 만났으며, 한설야하고는 해방직전, 그를 구출하기 위해 「北鮮」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왔다고도 한다. 해방 후에도 한설야가 북한에서 초청장을 보내줬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여권이 안 나와, 해방 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일본인의 영광을 누릴 기회를 놓쳤다.

김사량하고도 일본 문단에 데뷔할 무렵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1942년에 保高德藏 등과 평양에서 만났을 때, 일류 기생들이 김사량을 민족의 영웅으로 떠받드는 것을 보고는 놀랐다고 한다. 張赫宙와 유아사 자신은 검문이 심해 작품 내용의 각도를 바꾸었으나, 감사량은 그런 것에 맛서 조마조마하는 내용으로 시국을 타개해 나가고 있었다 한다. 김사량하고는1944년 가을에 경성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유아사가 총독부에 부탁하여 특별히 문학자 회의라고 전보를 보내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유진우하고는 해방 후에도 친분이 이어졌다.

www.kci.go.kr

이와 같이, 처음에는 「大陸開拓文芸懇話會」를 중심으로, 張赫宙와 湯淺克衛의 역할이 컸으나 태평양 전쟁 확산으로 일본 문단도 전쟁 협력이 확산되어 조선, 만주는 물론 남양 등지로 일본 문학자들의 전쟁 협력을 위한 범위도 넓혀갔다. 전쟁의 확산은 조선인들을 전쟁추행에 이용하기 위해 조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기 위한 문학자들의 선무 공작이며, 그러한 공작에 조선의 문학자들은 본 타이에 의해 일본 문학자들과 편승해 갔다.

「文芸銃後運動講演會」 조선반이 1941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전, 평양, 함흥, 청진 등에서 강연회와 좌담회, 육군 병원 위문 등을 한 후 일본으로 돌아갔다. 멤버로는 新居格, 小林秀雄, 河上徹太郎, 林芙美子, 松井翠聲이다.

「國民總力朝鮮連盟」 초청으로, 加藤武雄, 立野信之, 古谷綱武, 丸岡明, 福田清人가 파견되었다.

「皇道朝鮮研究委員會」는 1943년 1월에 설립되었다. 멤버로는 保高德藏, 張赫 宙, 湯淺克衛, 三浦逸雄, 加藤武雄, 三上喜久子, 津田剛, 濱本浩, 田中英光 등이다. 前身은, 「新半島文化研究所」로 1942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湯淺克衛가 중심이 되어 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皇道朝鮮研究委員會」의 발족은, 조선의 황민화 운동의 한층 더 조직화된 것과 동시에, 내지의 조선인의 황민화가 필연인 것을 의미했다. 재일 조선인의 學徒 志願兵의 시찰, 산업 전사로서의 炭田 위문 등 대상은 어디까지나 조선인이었다.

조선 문학의 일본 출판과 소개, 일본 문학자들과의 활발한 좌담회와 교류, 「大東亞文學者大會」, 「文學報國大會」 등을 통해 일본 문학자들이 외치는, 「문학을 통해서 전쟁 완수에 참가하자」, 「그것이 문학자의 임무다」. 「펜이 곧 劍이 되어야 한다」라는 등의 말과 행동에, 피식민자인 조선의 문학자들도 조금 더 시대를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같은 배를 타게 되었다. 이 당시의, 조선 작가들의 망설임과 고민은 李石薰의 「靜かな嵐」

www.kci.go.kr

(『國民文學』, 1941. 11)이나 田中英光의 「술 취한 배」(『總合文化』, 1949. 12)등에서 어느 정도 엿볼 수는 있다. 일본 문인의 개인적 교류를 떠나 단체에 의한 선무 공작 등이, 이윽고 문단 전체에 의한 조직적 강압과 조선문단 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공략에 무너져간 조선 문인들의 「皇國 문학 이념의 확립」이라는 이데올로기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이 시대를, 단지 외면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 한국의 역사상 성격은 다르나 강압은 해방 후에도 보였으며,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따라서 그런 강압에 어떻게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 대답은 부끄러운 역사 앞에서만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www.kci.go.kr

■ 국문초록 ■

일본의 만주문학
-「대륙 개척 문예 간화회」를 중심으로-

양예선

일본의 「대륙 개척 문학」이 탄생하는 배경에는 대륙 개척 이민 정책이 있고, 그 이민 정책을 널리 펼치기 위해 국책 단체가 결성되었다. 만주 개척 이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대륙 개척 문예 간담회」이며, 이 단체의 멤버를 중심으로 만주 개척지 시찰 등을 거쳐 많은 대륙 개척 문학이 생산되었다. 그 멤버이며 대륙 개척 문학을 써, 조선과도 가장 깊게 관련된 유아사 가츠에이를 다루었다. 유아사의 개척 문학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일본의 개척 문학의 깊은 이해를 도모했다.

유아사의 개척 문학은 만주 개척 이민 정책의 전개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만주 개척민이 되어 가는 일본의 농촌을 시찰하거나 체재해 그 자료를 조사한다. 또, 이주하는 만주의 개척지를 방문하거나 체재한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작품화했다. 유아사에 한정되지 않고 만주 개척 문학을 쓰는 대부분의 일본의 문학자들의 수법이기도 했다. 특히, 유아사는 조선에 사는 일본인을 다루거나 조선인을 소재로 한다는 점이 다른 문학자와 다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국책 단체인 「대륙 개척 문예 간담회」의 역할은 단지 만주 개척민의 시찰만이 아니었다. 도중, 조선에 들러 조선의 문학자들과 좌담회나 조선에 사는 사람들에게 강연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내선 일체・황

www.kci.go.kr

민화를 서두르는 식민지 정책에의 협력은 더욱 더 활발하게 전개되어 갔다.

문학자의 입장을 이용하여 일본의 문학자들은 조선의 문학자들도 전쟁 협력으로 몰아냈다. 일본이 대동아전쟁에 물들어 가는 것에 따라 일본의 문학자들도 본래의 입장을 잊고 그 협력에 여념이 없었다. 조선·만주·대만·중국·몽고·남양의 문학자들에게 일본 제국 이데올로기의 이념을 강요했다.

일본의 문학자들에 의한 조선 문단과의 관계와 조선 문단의 전쟁 협력 활동에 대한 행위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대조해보고 싶다.

주제어 : 대륙 개척 문학, 대륙 개척 이민 정책, 유아사 가츠에이, 만주 개척민, 대동아전쟁

www.kci.go.kr

■ Abstract ■

The Manchuria Exploitation Literature in Japan
-At a cente 「TAIRIKU KAITAKU BUNGEI KONWAKAI」-

Yang Yeesean

There was a continent exploitation immigration policy in the back-ground according to which Japanese “continent exploitation li- terature” is born, and in order to extend the immigration policy, the national policy organization was formed. What it was closely concerned with the Manchuria exploitation immigration is a “continent exploitation literature gathering for friendly discussion”, and much continent exploitation literature was produced through the Manchuria reclaimed land inspection etc. focusing on this organization's member. It was the member, and continent exploitation literature was written most and Katsue Yuasa with whom Korea was concerned deeply was taken up. A deep understanding of Japanese exploitation literature was aimed at by investigating the contents in detail focusing on the exploitation literature of Yuasa.

The exploitation literature of Yuasa has many deployments of a Manchuria exploitation immigration policy, and concerned contents. The farm village in Japan which becomes the Manchuria exploitation people and goes is inspected, or I stay and the data is investigated. Moreover, I visit the reclaimed land in Manchuria to which it emigrates, or stay. And it work ized from the contents. It was also the technique of the literary

www.kci.go.kr

men of not only Yuasa but almost all Japan that writes the Manchuria exploitation literature. Especially Yuasa can take up the Japanese who lives in Korea, or the place dealt with North Koreans can say it as the feature which other literary men do not have.

The role of a "continent exploitation literature gathering for friendly discussion" which is a Japanese national policy organization was not only inspection of the Manchuria exploitation people. It was performing the lecture to people who visit Korea and live in a round table talk with Korean literary men, or Korea the middle. The cooperation in the colonial policy which really [civil war] hurries people of the Empire ization is becoming still more active.

Japanese literary men also drove Korean literary men to war cooperation using a literary man's position. Japanese literary men have also forgotten the original position and ran to the cooperation as Japan was dyed Greater East Asia War. The literary men of Korea, Manchuria, Taiwan, China, Mongolia, and the South Pacific were forced the idea of Japanese empire ideology.

I want to test the act to the war cooperation activities of a Korean literary world by comparison with relation by the Korean literary world by Japanese literary men to us who live the present age.

Key words : continent exploitation immigration policy, continent exploitation literature, Katsue Yuasa, Manchuria exploitation people, Greater East Asia War

www.kci.go.kr